

# 대전시 공무원의 지역벤처 사랑

##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 '지지21' GPS제품 150대 공동구매

**대** 전시 한 공무원이 시청 사내게시판을 통해 지역 첨단제품 사주기 운동을 벌여 화제다. 특히 단순한 캠페인성 운동에 그치지 않고 150여 명의 시청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지역 벤처기업의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전시청 경영평가담당관실 김성철 사무관. "캐치웨이플러스는 지역에 있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지지21(대표 이상지)이 생산한 GPS단말기 제품입니다. 지역 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모두 함께 구매합시다." 김사무관이 사내게시판에 올린 내용이다. 그는 "기술력과 성능은 우수하지만 인지도가 떨어져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벤처기업을 돕고 싶었다"며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사실 김사무관은 지역 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기업지원과에서 3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기업들의 애환을 풀어주기 위해 고민해왔다. 그러던 중에 지역업체의 GPS제품이 공무원들에게 유용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시청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지난 9월 13일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마자 공무원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폭발적이었다. 며칠만에 급기야 150여 명이 구입의사를 밝혀 결국 9월 16일 대전시청에서 '우리지역 벤처기업 제품 팔아주기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이다. 대전시 공무원이 직접 지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자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가 시작되자 지역상품을 사주자는 마음을 같이한 수십여 명의 공무원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제품을 구매한 한 시청 공무원은 "지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 제품을

▲ 대전시청 김성철 사무관 을 바꿨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신제품 신기술

## 펩트론, 年 5백만불 펩타이드 수출



**지** 금까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오던 연구용 펩타이드가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대량 수출된다. 펩타이드 개발 및 생산전문 벤처기업 펩트론(대표 최호익)은 올 상반기에만 美 국립보건원(NIH)을 비롯해 세계적인 연구소 및 항체 제조회사, 제약회사들과 잇따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美 CHEMICON INTERNATIONAL과 항체 제작용 펩타이드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6월에도 NIH, Merck&Co., BD Biosciences 등과 연이어 공급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회사측은 이들 연구소 및 기업에 수출되는 물량이 연간 최소 500만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물량이 가장 큰 곳은 세계적 제약회사인 Merck&Co.의 중앙 연구소와 NIH로 이 두 곳에서만 연간 최소 400만불 이상의 연구용 펩타이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 항체제조회사인 BD Bioscience 등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계약 첫해, 연간 150만불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펩트론은 이들 기업들과 매년 300% 이상 주문량을 신장시키기로 합의했다.

회사측은 미국 시장에서 펩트론의 연구용 펩타이드가 호평받는 이유로 기존 경쟁사 대비 30~40% 가량 빠른 맞춤형 펩타이드 합성 능력과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미국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